명지병원, 코로나19 통합의료시스템 구축

중증환자 집중치료부터 버추얼케어까지

국가지정 격리병상 등 전방위 대응
18일 경증 확진자 비대면 치료 시작
이상 있을 땐 의료기관 이송 요청도
“지역병원들 도움 절실” 협조 호소

명지병원 전경

명지병원 부속 MJ버추얼케어센터 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관리를 하고 있다(위 사진). 명지병원 MJ백신연구소의 출범 기념 백신 심포지엄 모습. 사진제공 | 명지병원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와 건강관리를 18일부터 시작했다. 이로써 코로나19 거점병원인 명지병원은 환자 선별과 검사부터 생활치료 및 중증환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통합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체 개발 전용 모바일 앱 활용

명지병원은 지금까지 호흡기발열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센터, 경기 제4호 생활치료센터, 중증환자 치료병상 및 국가지정 격리병상 등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전방위적인 대응과 환자치료를 담당해 왔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자가격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버추얼케어 서비스도 시작했다. 명지병원은 14일 고양시로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 확대에 맞춰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버추얼케어를 통한 건강관리와 치료를 18일부터 시작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는 확진자도 증상이 심할 때만 병원에 가는 의료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확진 판정은 받았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 즉, 집에서 음성이 될 때까지 건강관리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명지병원은 MJ버추얼케어센터에서 개발한 전용 모바일 앱(MJ Virtual)과 보건복지부의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활용한다. 재택치료자 대상 선정, 1일 2회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24시간 상시 관리체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전 발행, 정신건강평가(1, 5일차),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환자 건강상태 이상 시에는 지역 보건소에 의료기관 병상배정 및 이송을 요청한다. 반대로 상태 호전 시에는 재택치료 해제 및 격리해제 판정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서용성 명지병원 기획실장은 “현재 우리도 호발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등으로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재택치료에도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필요해 경험이 많은 명지병원에서 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이어 “재택치료 중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를 신속히 수용하는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병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역 의료기관의 협조를 호소했다.

●MJ백신연구소, 코로나 관련 연구 성과 발표

한편, 명지병원은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검사, 확진자 수용, 중환자 격리병상 집중치료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진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8월 11일에는 MJ백신연구소(소장 김광남 교수)를 출범하고 일선 병원 임상연구소의 강점을 활용해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등의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도입, 정착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J백신연구소에는 명지병원 백신접종 TFT 단장을 맡은 김광남 교수와 서울대학교 간연구소장,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첫 간염백신 개발을 주도했던 이효석 교수, 대한감염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강원 교수 등의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MJ백신연구소는 8월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각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의 조동호·김광남 교수팀은 최근 국내서 많이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의 항체가와 중화항체가가 접종 완료 4개월부터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부스터 샷이 필요한 근거를 증명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실시한 화이자 백신 접종 후의 항체 지속 연구 중 국제학술지에 처음으로 게재됐다.

또한 이에 앞서 진단검사의학과의 임재균 교수팀도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자연감염자의 백신 접종 후 항체가 변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하면 부스터 접종의 효과가 있어 한 차례의 백신 접종으로도 100%의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광동제약, 단백질 음료 ‘닥터 프로틴秀’ 출시

광동제약은 궁중음료로 알려진 봉수탕(鳳髓湯)을 과학적으로 재해석한 단백질 음료 ‘닥터프로틴秀’(사진)를 출시했다. 봉수탕은 봉황(鳳凰)의 골수(髓)라는 뜻으로, 봉황처럼 장수할 수 있다며 예로부터 임금님이 즐겨 마셨다고 전해진다. 잣과 호두를 곱게 다져 꿀에 재운 뒤 백비탕(끓인 약수)에 타서 마신 전통음료다. ‘닥터프로틴秀’는 봉수탕을 기반으로 단백질 9.5g과 칼슘, 비타민D 등 15종의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했다. 출시 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기존 단백질음료 제품들에 비해 고소한 맛이 강하고 잔여감이 덜해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무릎서 소리나는 십자인대파열 증상 정도에 따른 치료 이뤄져야

십자인대는 무릎관절 사이에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며 위치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대다. 무릎이 앞뒤로 밀리거나 회전 중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십자인대 파열은 스포츠나 외부활동 중에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거나 젖혀질 때 주로 발생한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릎에서 ‘퍽’하는 파열음이 나거나 찢어지는 느낌이 나며 해당 부위가 많이 붓는다. 초기에는 주변 근육이 경직되어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덜렁거리는 느낌이 나고 빨리 뛰기가 힘들어진다.

오래 방치되면 연골파열과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경미한 부분 파열은 비수술적 치료를 한다. 보조기를 착용해 인대를 안정화한 후 재활운동치료를 하게 된다. 심한 부분 파열이거나 완전 파열일 때는 수술적 치료인 관절경하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다. 찢어진 인대를 제거하고 해부학적 위치에 인대를 삽입해 기능을 대체하는 수술이다. 환자의 힘줄을 이용하거나 가공된 인대를 선택할 수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의료진과 상의해 판단하는 것이 좋다.

수술 후에는 무릎을 곧게 편 상태로 수일간 안정한 후 재활운동치료를 시작한다. 6주에서 8주 후 정상보행이 가능하다. 조깅은 3개월 후, 과격한 운동은 6개월에서 9개월 이후 가능하다.

십자인대파열은 수술 후 재활치료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관절병원 전문 의료진의 조언 아래 무릎관절 운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프라임병원 **최훈휘** 원장

치매치료도 한방으로…전문 한방병원 청뇌한의원 개원

치매·건망증 등 뇌질환 전문치료

치매 전문 한방병원 청뇌한의원이 서울 반포동 강남본점(대표원장 박진호, 이진혁)과 잠실동 잠실점(원장 유인식)을 동시 개원했다.

청뇌한의원은 치매, 건망증, 수면장애, 두통 등 뇌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방병원이다. 청뇌한의원은 한방 처방과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 과학과 접목해 연구와 실험을 진행해 치매 치료제 ‘청뇌탕’을 개발했다. 청뇌탕은 국내 처음으로 과학적인 효과와 치매 치료의 기전을 밝힌 한방 처방이다.

병원 측은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와 공동연구를 통해 SCI급 저널에 논문을 발표해 효과와 실험의 정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치매 증상 개선 및 예방 관련 특허도 획득했다. 청뇌한의원 의료진은 파킨슨병 관련 특허도 출원한 상태이다.

박진호(왼쪽), 이진혁 대표원장.

청뇌한의원은 서울 강남본점, 잠실점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스페셜 에디션 출시

고려은단은 ‘비타민C 1000 360정’의 디즈니 스페셜 에디션인 ‘러블리 미키 마우스’와 ‘러블리 미니 마우스’를 출시했다. 곰돌이 푸, 디즈니 프린세스 에디션 등에 이어 새로 선보인 캐릭터 패키지 제품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단독으로 판매한다. 디즈니의 대표 인기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가 시그니처 컬러와 함께 케이스에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틴케이스 제품으로 다용도 수납함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하기 좋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 10월 21일 (목) 음력: 9월 16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횡재수가 있다.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지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움직여라.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서두르면 낭패본다. 기다려라.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올 때까지 힘을 길러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대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오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오히려 일만 커질 수 있다.

오늘의 날씨 21일(목)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서울	0/0	5	14
인천	0/0	6	14
춘천	0/0	3	15
강릉	30/0	7	17
대전	0/0	4	16
전주	0/0	5	16
광주	0/0	6	16
대구	0/0	6	16
부산	0/0	11	19
창원	0/0	8	18
제주	20/20	13	18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8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